

보도설명자료 (‘12. 12. 1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30년 켄 수 있는 함태탄광, 20년전 법 때문에 못 켄다’
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
1. 보도내용 (‘12.12.11, 조선일보 A14면)

□ 현재 채굴중인 장성광업소의 채산성 악화로 폐광까지 우려되므로
인근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 석탄산업법 개정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□ ‘89년 이후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
합리화정책에 반함

○ 합리화정책에 따라 비경제탄광의 감산·폐광을 유도하는 상황에서
폐탄광 재개발을 허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결여

* 함태탄광(‘93년 폐광)의 경우 탄광 폐광에 300억원*의 재정 지원

□ 함태탄광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문곡생산부에서 수평갱도를 굴진하여
채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개발기간, 투자비용, 안전성 등 제반여건을
고려할 때 재개발이 여의치 않음

○ 갱내수 배수, 기존갱도 보강, 신규갱도 굴진, 안전성 점검 등 재개발에
장기간(7~8년)이 소요되고, 광부의 이동시간도 왕복 2시간 이상 소요

- 지난해 폐쇄된 문곡생산부 보강 및 수킬로미터에 걸친 운반 및
이동 갱도 신규개설 필요

- 갱도굴진 등 재개발 추진에 앞서 약190만톤으로 추정되는 막대한
양의 갱내수를 완전히 배수해야 하며, 배수한 갱내수에 대한 폐수
처리를 위한 막대한 용량의 정화시설 필요

- 탄광에 채워진 갱내수의 완전 배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, 물을
배수한 이후에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

- 갱내수를 배수한다 하더라도 붕락된 갱도에 차있는 물이 채탄
막장으로 터져나올 경우 속칭 물통사고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 불가피

○ 석탄공사가 함태탄광을 장성광업소와 통합 개발하는 경우에도,
채산성이 민영탄광에 비해 열악하여 비경제적

* 석탄생산원가(천원/톤, ‘12년 기준) : 석탄공사 21만원, 민영탄광 13만원

- 석탄공사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상존한 상태에서 함태탄광 재개발시
경영적자만 악화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박병찬 과 장(02-2110-5490)
고창범 사무관(02-2110-5493)